

환경세

게라마 제도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한 세금

생활과 세금

게라마 제도를 방문하는 이들은 모두 100 엔의 환경세를 내야 합니다. 배나 비행기의 운임에 자동적으로 가산되는 이 세금은 자마미의 섬들에서는 ‘주라시마세’(주라시마는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으로서 보통 오키나와 자체를 가리킨다), 도카시키키지마 섬에서는 ‘환경목적세’라고 합니다. 명칭이 나타내듯이 모인 자금은 관광시설의 보전·유지·수리에 사용됩니다. 즉 꽃이나 관목의 식재, 전망대 주위의 풀베기, 공중화장실 청소, 그리고 항구나 해변 미화에 사용됩니다.

해양 플라스틱

게라마 제도처럼 목가적인 장소도 해양 플라스틱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해양에는 1 억 5,000 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매년 800 만 톤씩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해양 쓰레기의 5분의 4를 차지하며, 해양 생물에게 해를 끼쳐(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100% 바다거북의 몸속에서 발견됩니다) 이우고 인간의 먹이연쇄에 침투합니다. 게라마 제도의 해변에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바다거북의 산란 능력을 저해합니다.

게라마 제도의 해변에서 눈에 띄는 페트병을 줍거나 지역 당국이 주최하는 청소일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햇빛과 바다에 의해 마이크로 플라스틱(크기 5mm 미만), 또는 나노 플라스틱(크기 100nm 미만)으로 분해되기 전에 회수되어야만 합니다. 게라마 제도의 당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려 하고 있으며, 일회용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등을 스스로 섬에 가져옴으로써 여러분도 섬의 환경 보전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게라마 제도의 환경 문제는 해양 플라스틱뿐만이 아닙니다. 섬들은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안고 있어서 샤워를 하거나 다이빙 용품을 씻을 때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물을 사용해주세요.

산호를 소중하게

게라마 제도를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주는 것은 산호초입니다. 산호는 생물입니다. 밟거나 차면 죽어버립니다. 오리발을 사용해 스노클링을 하고 있을 때는 평소보다 발이 길어져 있으므로 잘못해서 산호와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산호

위의 수면 가까이에서 수영할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사진, 특히 셀피를 찍기 좋아하는 분은 사진을 찍기 전에 주위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서 일어서는 곳에 산호가 없는 안전한 지점을 선택하세요.

Photos

1. Ferry on the sea
2. Plastic bottles on a beach
3. Clean-up day
4. Kicked/trod-on dead coral